

#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 A Christian Answer to the Problem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제해종

삼육대학교 신학과

Haejong Je(jehaejong@hotmail.com)

### 요약

이 논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자살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자살에 대한 역사적인 입장은 용감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찬성과 신이 부여한 생명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로 나뉜다. 성경의 자살은 대부분 명예자살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 내에서 부정적으로 자리 잡다가 급기야 '자살자는 지옥행'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 자살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략 생물학적 원인, 정신과적 원인, 그리고 사회학적 원인의 세 부류로 나뉜다. 논자는 이들 각각 혹은 복합적으로 자살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이들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자기 해석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절망적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에 기초하여 논자는 자살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으로 자살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인식과 실제적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을 매듭지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고귀한 것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은 살인 금지규정에 대한 위반이지만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확산 역시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 기독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뿐 아니라, 자살예방센터를 초 교파적으로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 중심어 : | 자살 | 우울증 | 절망 | 희망 | 생명존중 | 자살예방 |

###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suicide that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our society as well as in the world toda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Historical position regarding suicide is divided into two; some see it as a brave and honorable act and give approval to it, the others view it as act of giving up the life that is given by God and are opposed to it. Though suicides in the Bible are mostly committed to maintain honor, because of Augustin's position it became negative in Christianity, leading to a thought that one who committed suicide goes to hell. Why then people commit suicide? The views of scholars on the cause of suicide are divided into three;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ological. My position is that though each or all of them contribute to suicide, yet the decisive factor is on how a person reacts to them. Major factor of suicide is how humans as interpretive beings accept the present despair.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of suicide and humans, I conclude this paper with three new recognitions as an essential answer to suicide. First, humans are made in God's image and belong to Him, thus their life is precious. Second, Christianity views humans as ones look for the hope in the future as the eternal life. Third, suicide is a violation of the commandment 'do not kill' yet it is not an act of sin but a disease that needs to be cured. To achieve this Christianity must not only spread the idea of respect for life and also run suicide prevention center every city.

■ keyword : | Suicide | Depression | Despair | Hope | Respect for Life | Suicide Prevention |

## I. 들어가는 말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현재는 세계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고 풍요로워 졌다. 이러한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개인의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로 조사될 정도로 최하위권이다[20]. 우리 국민의 삶이 모든 면에서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과연 정말 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런 사회의 모순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살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쓸 정도로 세계 최경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이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수가 2012년에 28.1명으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2.9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32]. 1991년에 9.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불과 약 20년 만에 세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16]. 이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만족도 역시 동반 상승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보여준다.

기독교인들이 국민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해 온 상황에서 자살률의 급증은 생명중중사상을 강조하는 기독교에 커다란 부담이다. 오늘날 생명의 고귀함이 마구 짓밟히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한국 기독교는 자살 현상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기독교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논자는 이 논문을 통해 먼저 한국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살의 현주소와 그 심각성을 우선 살펴보고,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성경의 자살 사례들을 간략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자살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자살문

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이 논문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긴 하지만 다양한 학자들의 자살원인에 대한 견해들을 논의에 포함시킨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살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이해를 위함이고, 둘째는 시대와 장소는 변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한국사회의 자살문제는 사회과학적 이슈이긴 하지만 논자의 접근 방식이 기독교적 답변을 찾는 것이므로 인문학적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자살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성경의 자살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자료의 수집은 자살 문제의 고전이 되는 저술들과 최근의 자살 문제에 있어서 권위자들의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자살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 II. 자살의 현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자살의 현주소는 어디쯤 될까?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자살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전염병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자살,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들과 주부들의 자살, 사랑에 실패한 젊은 남녀들의 자살, 청소년들의 성적이나 교우관계 비관으로 인한 자살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특히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군인들의 자살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상 유명인이나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살 사례는 오늘날 뉴스 꺼리조차도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2012년 한 해 동안만 우리나라 총 사망자 267,221명(하루 평균 732명)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4,160명(하루 평균 38.7명)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5.3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32]. 이는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

사고 사망자 수(약 5천명)의 세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살은 일차적으로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개인적인 문제의 종지부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살은 남은 가족, 친구, 친지에게 죄책감이나 원망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동안 남긴다. 자살로 야기되는 문제는 자살자 본인 이외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최소 6명 이상의 주위 사람들에게 정서적 및 심리적 충격을 줌으로써 제2, 제3의 자살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9]. 사실상 이 숫자는 최소한의 숫자일 것인데, 이는 아무리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변의 가족, 이웃, 친지, 직장 동료 등만 포함시켜도 자살의 충격에 휩싸일 사람의 숫자는 20-30명을 훌쩍 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살은 가족, 지인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파괴력과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사회적 질병이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자살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29].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또 다른 유형의 자살은 바로 유명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의 자살이다. 이들의 자살은 단순히 가족들이나 몇몇 지인들에게만 그 파괴력을 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 국민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다. 또한 이들의 자살 소식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모방자살을 부추긴다. 실제로 1774년 9월 한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룬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권총 자살을 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푸른색 코트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곁에는 괴테의 소설이 있었다. 1974년 사회학자 필립스는 이런 모방자살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했다[23]. 유명인들의 자살을 모방할 경우 같은 방식뿐 아니라 같은 장소까지 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울의 마포대교에서 자행되는 빈번한 자살이 그 단적인 예다. 특별히 이런 유명인사들의 자살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앞을 다투어 더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살을 부추기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연예인 안정환 씨가 차량 안에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한 사실을 기자들이 너무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자살을 고려하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죽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던 사례는 모방자살의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35]. 오스트리아에서도 실제로 신문이 자살 사건을 다루면 다룰수록 자살률은 더 올라갔다[11]. 이런 이유로 자살의 전염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자살 보도의 가이드라인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23].

201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0대 이상의 사망원인의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자살인데 반해, 10대와 20대, 30대 사망원인의 첫 번째 자리를 자살이 차지할 정도로 자살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제가 되었다[32]. 만약 우리 사회에서 자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매 50분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버렸는데, 만약 기독교가 이런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지경에 놓일까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이다. 자살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생명의 경외성은 사라지고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오직 물질만능주의가 점점 더 만연함으로써 자살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 III. 자살의 이해와 기독교적 답변

영어의 ‘자살’(suicide)이란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라틴어나 그리스어에는 없다. 어원적으로 영어의 ‘자살’(suicide)은 라틴어의 ‘*su*’(자신)와 ‘*cide*’(잘라내다)의 합성어로서 ‘스스로를 잘라내다’는 뜻이며 한자로는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다[17].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살(suicide)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14]를 가리킨다. 어떤 이유에서 자행되었든지 간에 자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무서운 것이다.

왜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자살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철학자들이 자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되짚어보는 것은 자살 문제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는 기독교적 자살 이해의 기원과 뿌리가 이런 역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성경에서 자살한 인물들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이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살이 언제나 영웅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는 불로 자살함으로써 불사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에 오를 수 있었고, 피라모스를 잃고 절망한 티스베가 자살했을 때 평소와 비교도 안 될 크고 붉은 열매를 맺었다든지, 혹은 자살한 괴물이 스펅크스가 되었다는 기록 등은 한결같이 자살을 예찬하고 있다[11].

하지만 그리스 신화들과는 달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살을 반대했다. 고대 자살 논의의 출발점으로 플라톤의 『파이돈』이 종종 언급되는데, 이것은 고령의 소크라테스가 한 달간의 감옥살이를 끝내고 최후의 날을 맞이하는 하루 동안의 대화를 수록한 것이다. 여기서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철학자들은 “모두가 다름 아닌 죽는 것과 죽음을 스스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33].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는 다른 세계에 대한 위대한 축복을 얻기를 기대할 수 있기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죽음을 미화할 뿐 아니라, 독배를 마시고 태연하게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플라톤의 이런 행동을 자살찬성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에 따르면 신은 인간의 보호자이고 인간은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역시 신에게 속한 것이므로 자살은 신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28]. 이런 이유로 플라톤은 “스스로 자신을 죽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벌 줄

방도만 있다면, 벌도 주겠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살을 반대했다[33]. 그리고 후기 저술인 『법률』에서 그는 자살이 수치스런 행동이기 때문에 묘비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9].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살은 불법적인 것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며[29], 또 공동체와 국가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스승처럼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1].

견유학과, 스토아학과 그리고 에피쿠로스학파는 자살에 대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견유철학자 프로테우스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올림피아대회 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을 장작불 속에 투신함으로써 자살했다[30]. 스토아학파는 삶이 불합리하다면 자살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자살을 운명에 대한 개인의 승리로 칭송할 뿐 아니라, 자살을 자유를 향한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했다[15]. 이들이 자살을 인권과 결부시킨 것은 인간의 생명이 인간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는 생명자체보다 생명을 소유한 인간의 권리가 더 소중함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신이나 초자연의 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물질세계만을 강조하고, 죽음도 단순히 원자들의 흩어짐으로 이해함으로써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강조했다. 따라서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어차피 사후의 심판이나 형벌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자살로써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다[11]. 이러한 철학적 이해들에 근거하여 자살은 용인될 뿐 아니라, 심지어 칭송되기까지 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은 자살에 대해 크게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살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철학자들에는 이미 언급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외에도 칸트, 헤겔 등이 있는데, 이들이 자살을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을 신의 선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견유, 스토아, 에피쿠로스학과 이외에도 몽테뉴, 몽테스키외, 디드로, 루소, 볼테르 등과 같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과 흄, 쇼펜하우어, 니체 등은 자살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식함으로써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4]. 이들은 대개 철학적인 이유로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살한 자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자살 찬성론자들의 기본적 입장은 인간의 생명이 인간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궁극적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철학자들의 나누어진 견해와 달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른 대부분의 유신론적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자살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서 벌 받을 무서운 죄로 간주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한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명의 소유자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단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탁받은 청지기이므로 생명을 함부로 버릴 권리는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의 기독교적 뿌리는 아우구스티누스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 따르면 자살은 한 개인에게서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최악이었다[19]. 즉 그는 자살을 살인죄로 볼 정도로 최악시켰다. 결국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살에 대한 입장은 기독교 사상사에서 자살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반기를 든 도나티스트파(Donatists)가 자살한 자는 순교자가 가는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살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는 줄곧 그의 사상을 이어 받았다. 예를 들어, 아를르 교회회의(Council of Arles, 453)는 자살을 마귀 짓으로 규정했고, 브라가 교회회의(Council of Braga, 563)는 자살로 죽은 자의 장례를 교회가 치를 수 없게 했고, 또 톨레도 교회회의(Council of Toledo, 693)는 자살을 시도한 자는 2개월 동안 교회 교적에서 제적 시켜서 성찬식에도 참석을 불허했다[28]. 중세기 동안 자살에 대한 혐오는 점점 그 도를 더해 자살한 자의 시체를 거리로 끌어내서 심장을 막대기로 찌르고 짐승의 먹이로 방치하거나 교수대에 걸어놓고 썩도록 방치하

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살자들을 위해서는 장례식조차 치루지 않고 매장했다 [23].

아퀴나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시켰다. 그는 자살에 대해 자연법에 대한 반역, 사회에 대한 직무유기, 신권에 대한 도전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이 중세시대의 자살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자리 잡았다[17]. 이런 기독교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자살에 대한 혐오는 자살자의 시체를 모독하는 일,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일 등을 통해 표현됐다. 단테도 자신의 『연옥』에서 자살자는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할 저주받을 존재로서 그 영혼이 일곱 번째 지옥계에 떨어져 피 흘리는 나무로 변해서 고통 속에서 하피라는 괴물에게 무자비하게 먹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23].

개신교 종교개혁자들도 자살에 반대하고 자살을 죄로 간주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칼뱅의 경우 자살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간주하지는 않았다[28]. 자살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중세 이후 다소 완화되는 듯 했지만, 기독교 사상가들의 전반적인 부정적 입장의 영향으로 보수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것이 회개의 기회 상실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거부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급기야 자살은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자신에 대한 살해로 간주되었고, 또 오순절교회와 같은 일부 보수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살하면 자동적으로 지옥 간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자살은 지옥행이라는 명시적인 가르침은 성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살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처럼 자살을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지옥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살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17].

## 2. 성경의 자살 사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살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거역으로 간주한 이래 자살은 기독교 내에서 철저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자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독교적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의 증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과연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게도 성경은 자살문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단지 몇몇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별다른 평가 없이 다루고 있을 뿐이다.

구약의 자살 사례는 다섯 번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용기 있는 영웅적 행동으로 비쳐지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가 전쟁 중 여자가 던진 땃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병기를 든 자에게 칼로 자신을 죽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불명예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삿 9:53-54).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도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던 중 활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을 모욕으로 여기고 호위병에게 자신을 찌를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사울이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음으로써 명예를 지킨 것처럼 묘사한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왕의 반역을 주도한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이 자신의 모략이 후세의 모략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압살롬에 의해 그것이 채택되지 못하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 아비 묘에 장사”(삼하 17:23) 되었다. 아히도벨의 경우 주목할 것은 그가 자살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 묘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 자살은 엘라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됐지만 자신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 하자 스스로 불 속에 몸을 던져 죽은 북방 이스라엘의 시므리 이야기다(왕상 16:18). 이들 둘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명예가 실추되자 자살을 선택했다. 이처럼 구약의 자살 사례들은 대개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고수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들 죽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공통점이다. 끝으로 삼손의 자살은 블레

셋 사람들에 의해 장님이 된 후 신전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무너트려서 자살함으로써 원수들과 함께 죽게 된 사건이다(사사기 16:29-30). 삼손의 자살 사건은 앞의 자살들과는 다른 유형의 것으로서 성서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수의 자기희생과 견줄 정도의 영웅적 행동으로 묘사한다[22].

신약에는 단 하나의 자살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의 자살이다. 유다의 자살은 구약의 명예로운 자살과는 전혀 다른 자포자기형 자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성경은 그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다(마 27:3-10).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유다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도 상실한 채 비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것이다. 물론 성경이 그의 죽음 자체에 대한 평가나 설명을 덧붙이고 있진 않지만 그의 자살은 구약과 달리 신약이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일조했음에 틀림없다. 유다의 자살은 분명 그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한 것 또한 명백하다. 자살과 관련된 신약의 기사는 빌립보 간수가 바울이 탈옥한 줄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이야기다(행 16:27-28). 여기서 바울은 자살하려는 간수를 저지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은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절망 가운데 자살의 위기 속에 내몰렸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 희망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살 위기는 자연히 해결되었다.

### 3. 자살의 다양한 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혜상,”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털 하나라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건강하게 지킬 것을 강조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유교사상 뿐만 아니라 불교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보고 살생 자체를 금한다. 물론 이런 살생 금지라는 그들의 윤리 뒤에는 윤회설이라는 독특한 교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긴

하다. 성경과 기독교도 분명히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옴처럼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금하고 “피투성이라도 살라”(겔 16:6)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서 그만큼 대접을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인간 생명의 신성성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다. 우리나라에서만 한해에 약 1만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살로 자신의 하나 뿐인 목숨을 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90만 명 이상이 매년 자살한다[13].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반적으로 빈곤, 질병, 기아 등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극복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 때는 자살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훨씬 살기 좋은 시대인 오늘날엔 오히려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니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이 대부분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자살률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는 정신질환과 육체적 질병을 자살의 두 가지 주요 위험 인자로 들고 있고 [13], 모네스티에는 1967년 세계보건기구 연구 자료를 인용해 자살의 동기가 989가지, 자살 방법은 83가지에 이른다고 했다[10]. 학자들마다 다양한 자살의 동기와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에밀 뒤르캄(Emil Durkheim)은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했고[10],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자살을 “왜곡된 살인”으로 보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했다[27]. 마르탱 모네스티에(Martin Monestier)는 자살의 원인을 연애, 부끄러움, 명예, 자아희생, 명령, 믿음, 정치적 위기, 빈곤, 부당한 처우, 정신질환, 미신, 신의 심판 등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1]. 정신과 교수로서 우울증 전문가인 케이 레드필드 제미슨(Kay Redfield Jamison)이나 토머스 조이

너는 자살을 정신병리학적 및 유전학적으로 설명하였다[23, 25]. 애착이론가인 존 볼비(John Bowlby)는 자살을 애착대상의 상실로 인한 절망의 결과로[3], 에드윈 슈나이드먼(Edwin S. Shneidman)은 심리적 고통의 결과로[5], 모리스 파버(Maurice L. Farber)는 “희망의 질병”으로 보았다[6]. 우리나라에서 생활고, 교우나 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성적 비판 등으로 인해 빈번히 자행되는 자살은 이런 심리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자살의 원인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생물학적 원인, 정신과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을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자살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자들이 분석한 몇 가지 요인들을 다루는 것은 해법을 찾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본다.

### 3.1 생물학적 원인

첫 번째 자살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재미슨이나 조이너가 지적한 것처럼 신경전달물질과 홀몬들의 작용, 유전 등과 관련된 생물학적 원인이다. 인간의 몸에는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전달물질들이 세포와 세포, 뇌와 뇌, 뇌와 몸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들 중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인체활동과 감정 활동에 깊이 관여한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은 혈관의 지름을 조절한다든지, 고통 인식이나 장 활동이나 몸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고, 또 혈소판을 응집시키는 역할 등 다양한 생리적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재미슨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이 홀몬은 인간의 감정 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울증과 수면조절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자살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23].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양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게 될 때, 한 개인은 우울증을 앓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로토닌이 줄거나 전달에 장애가 발생하면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그만큼 자살의 위험이 증가된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 원숭이들에게서 세로토닌 대사물

인 5-HIAA(5-히드록시인돌아세트산) 수치가 낮아지면 공격성이 증대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실제로 난폭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람의 경우도 5-HIAA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26].

자살이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또 다른 증거로 거론되는 것은 그것이 유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생물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유전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 대에 걸쳐서 자살자들을 연구한 것과 쌍둥이들의 자살을 연구한 것을 비교해 본 결과 자살자들을 조상으로 둔 가정의 자살률과 이란성보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자살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중 하나가 자살로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하나도 자살할 가능성이 일란성은 15퍼센트, 이란성은 1퍼센트 미만이다[25].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자살 행동에는 생물학적 유전 요인이 분명히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미슨은 자살의 최소 6분의 1이 생물학적 유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23]. 조이너도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을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봄으로써 제미슨의 주장과 일치하는 입장을 보였다.

### 3.2 정신과적 장애

두 번째 자살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과적 장애로서 생물학적 요인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제미슨은 자살의 주된 요인을 시대별로 분류하면서, 고대 로마 젊은이들은 수치심과 슬픔과 절망 때문에, 19세기 프랑스와 유럽인들은 정신이상과 알코올중독으로, 그리고 20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자살한다고 했다[23].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자살을 결행할 당시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자살을 ‘왜곡된 살인’으로 보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살은 부모라든 내재된 타인을 향한 살인 행위로 간주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내재화된 존재에 대한 분노의 발산인데, 특히 그 대상이 부재할 때 내재된 타인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의 증대로 자살을 결행하게 된다[27]. 이 주장이 오늘날 현

실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가 제시한 정신분석학은 자살 문제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근년 들어 정신분석학은 내적갈등과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이 사용된다고 본다. 임상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자살률이 4배나 높다.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 때, 자살이 유행처럼 번졌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였다는 사실도 정신과적 원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을 입증한다[11].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심하게 노출된 청소년의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의 75% 정도가 자살을 결행하기 전에 우울증 겪었고, 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의 10-15%가 실제로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21].

존 볼비의 애착이론도 자살이 정신과적 장애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준다. 그에 따르면 모든 자살의 심리적 배경에는 애착대상의 상실이나 그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애착대상에는 직업, 재산, 명예, 사람, 성적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추구하던 이런 애착대상을 상실할 경우 사람들은 삶 전체에 대한 희망마저 상실하게 됨으로써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애착 대상이 사라질 때 개인들은 전부를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 사회 저명인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던 뭔가를 상실했을 극도의 절망가운데 자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 이런 상실이 인지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자살을 결행하게 된다. 애착대상의 상실이 한 개인의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함으로써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3.3 사회학적 원인

세 번째 자살 원인으로는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



Durkheim)이 제시한 사회학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은 자살 논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책으로서 자살 문제에 관한 한 고전으로 인정받는다. 그는 자살을 생물학적, 정신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적 특성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다. 뒤르켐의 공헌은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살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28]. 뒤르켐에 따르면 자살은 그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한 개인이 특정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서 피해자 자신에 의해 자행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결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죽음”을 의미한다[10]. 그는 『자살론』에서 우선 자살의 요인으로 정신질환, 유전, 기후, 그리고 모방 등과 같은 비사회적인 요인들을 열거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자살의 사회적인 원인으로 이기적인 자살, 이타적인 자살,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을 들었다. 이기적인 자살에 대해 논하면서 뒤르켐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유대가 강한 가톨릭 신자가 그 보다 약한 개신교 신자보다 자살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조건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10]. 여기서 그는 인간이 사회로부터 절연되거나 고립될 때 자살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사업의 실패나 실연, 가족의 죽음 등을 통해 상실감이 증대되고 고독과 소외감이 가중될 때 사람들은 자살한다. 또 다른 유형의 자살은 이타적인 자살인데 이것은 현대사회보다는 미개한 원시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 주로 일어난 이타적 자살은 노쇠나 질병에 걸린 남자, 남편의 죽음을 맞은 여인, 그리고 족장의 죽음을 직면한 부족민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10]. 하지만 이타적 자살이 반드시 전근대적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종교적 신념이나 혹은 공동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 승려들의 독립을 위한 분신자살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의 자살은 대개 어떤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지나친 의무감이

나 헌신감을 가짐으로써 발생한다. 이것은 자아 희생적 자살로서 종교나 그에 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끝으로 그가 언급한 것은 아노미적 자살인데, 이것은 개인이 사회적 혼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극단적 좌절을 경험할 때 택하는 일종의 탈출구이다. IMF 사태와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 때에 자살자가 급증하는 것은 바로 아노미적 자살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포자기적으로 자살을 결행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혼란과 재난의 상황 속에서 노여움과 극도의 좌절감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자살을, 타인에게서 찾으면 살인이나 폭력적인 폭발로 나타난다[10]. 뒤르켐이 견지한 입장의 핵심은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현상이라는 것이다.

### 3.4 복합적 요인

자살의 원인으로 위에서 제시된 생물학적, 정신과적, 그리고 사회학적 요인 세 가지가 자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 자살에 세로토닌 같은 홀몬이 관여하는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개입된 것이 틀림없고,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자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임상 심리학자들에 의해 관찰되었다. 이런 개인적인 요인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회학적 요인이라는 뒤르켐의 주장도 자살 원인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각각 자살의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지만 여전히 자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에 의해 세로토닌과 같은 특정 홀몬 분비가 급격히 떨어질 때 자살 위험이 높아지고, 또 정신과적으로 볼 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자살 고위험 군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과적 요인 역시 자살에 영향을 주긴 해도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다 실제로 자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요인만으로도 자

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열악한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자살현상의 결정적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개인에게 하나 혹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자신이 어떻게 그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자살 여부가 결정된다.

그것이 홀몬이나 정신과적 요인이든, 애착대상의 상실이든, 과도한 스트레스든, 한 개인의 자살 결행 여부는 자기의 내적 상태와 주변 상황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모리스 파버(Maurice L. Farber)는 자살을 “희망의 질병”(the disease of hope)[24]이라고 칭하고, 개인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희망과 미래를 상실했을 때 삶에서 절망을 체험하고 이 절망이 결국 그를 자살로 이끌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슈나이드먼도 심리적 고통, 곧 “심리통”을 자살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았고, 모든 위험 요소들이 심리통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5]. 임상 심리학자 애런 T. 벡(Aaron T. Beck)은 자살 사고로 입원한 2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조사 시작 후 10년 동안 14명의 환자가 실제로 자살로 사망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절망도 측정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던 환자들이란 점이다[2]. 따라서 자살은 생물학적 요인, 정신과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이들 복합적 요인들에 대한 개인적 대처와 반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자살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자신에게 작용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반응과 대처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 4. 자살 문제의 해법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모두 자살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베네치아의 힐다 스트라징거라는 여성은 14세에 처음으로 음독 사살을 시도한 이후에도 여섯 차례나 더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 구조되거나 다치는 정도로 끝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11]. 세계보건기구 <자살예방지침서>에 따르면 실제 자살

자 수는 시도한 사람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20명이 자살 시도한다면, 그 중 한 명이 성공해서 실제 자살자가 된다는 말이다[13]. 그리고 모네스티에에 따르면, 일단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다시 시도할 확률이 14퍼센트에 이르고, 자살미수자의 약 5퍼센트는 세 번까지 자살 시도를 한다[11]. 앤드류스(Andrews)와 레비손(Lewisohn)도 1,710명의 자살시도자들의 삶을 실제로 추적한 결과 1년 이내에 약 10퍼센트가 다시 자살을 시도했고, 메르(Mehr)는 약 51퍼센트가 2-8년 사이에 재시도하였다고 한다[26]. 이들은 자살이 또 다른 자살을 낳고,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자살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되는 자살 충동에서부터 사람들을 우선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성경의 자살 이야기들도 치명적 상처를 입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한 극단적 선택의 경우들이다. 찰스 거킨(Charles V. Gerkin)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정하고 존재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자기 해석적 존재”이다[7]. 즉 인간은 단순히 자신이 경험하는 환경을 수용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절망적이라도 인생에서 희망을 찾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겠지만, 반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다가 자살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의 과거 성장 과정과 주변 환경, 그리고 위기의 정도 등이 자기 해석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엔 그 능력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여전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에 대한 자율적 반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며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살 문제의 해법은 자살을 결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정신과적, 사회학적 복합 요인이 한 개인의 자살에 분명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의 자기 해석과 개인적 반응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현재라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과거의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현재와 미래의 나’일 필요는 없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해석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되어져 가는 존재’이다[8]. 이런 인간의 자기 해석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사람이 궁극적 의미에서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향하느냐에 대한 인식이다. 한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과거나 미래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참다운 현재적 위치를 인식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 4.1 기독교적 답변

그렇다면 자살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 논자는 생명에 대한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원론적 답변과 아울러 기독교계가 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본질적인 답변은 인간의 궁극적 과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받은 존재로서 생명의 소유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남이나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버릴 권한이 애당초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

니라”(창 9:6)고 하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을 명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고 고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 개인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독교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신성한 것으로서 고귀하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생명존중사상을 세상에 알릴 사명이 있다.

자살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본질적인 답변은 인간의 궁극적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구원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라는 것이다(요 3:16).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인데 자신의 개인적 과거를 기초로 해서 궁극적 미래를 조망하지 못 한 채 현재 속에서만 갇혀 살게 될 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생명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 것이다(롬 6:23; 8:1-2; 고후 5:17). 인간의 생명이 단순히 현재적인 것, 팔구십년 사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임을 깨닫는 것은 자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신약에서도 죄수 바울이 탈옥한 줄로 착각하고 자살하려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궁극적인 희망의 미래를 보았을 때, 자살을 포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과거와 현재의 절망적 상황이 결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절망까지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선제된다면 어떤 인간도 자신의 개인적 과거와 현재의 절망이 궁극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할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조망은 자신의 과거나 현재, 나아가서 미래적 절망의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던지는 자살행위는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얻을 기회를 미리 포기하는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살 문제에 관한 성서적 답변은 자살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한 위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을 범죄행위로 정죄하기보다는 특별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적으로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받은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짓밟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미래적 희망을 상실할 수도 있는 어리석은 선택이자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십계명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단순히 ‘자살은 지옥행’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보수적인 기독교 전통 내에서 자살을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지옥행으로 간주해왔다. 만약 자살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한 항목을 어긴 것이므로 지옥행이라면, ‘거짓말’이나 ‘간음’ 그리고 ‘도적질’을 하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도 지옥에 가야 마땅할 것이다. 자살은 한 개인이 성장과정 가운데 경험한 위기 등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조망하는 능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질병과 같은 비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따라서 자살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일부 보수적 기독교계의 태도는 자살을 아비멜렉, 사울, 아히도벨과 같이 존엄성을 고수하기 위한 방편[26]이나 혹은 삼손과 같이 자기희생적 죽음[22]으로 보는 등 자살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인 견해와는 거리가 있다[17]. 그러므로 우선 기독교 내에서부터 자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살은 더 이상 정죄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 관심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만약 우리가 자살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이해한다면 자살자에 대한 태도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생물학적, 정신과적, 그리고 사회학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하고, 또 한 개인의 성장과정과 주위 환경 속의 위기가 자기 해석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줌으로써 그를 자살에 노출시켰다면 이것을 그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자살은 분명히 한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을 가진 무서운 질병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더 이상 이대

로 방치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하나의 전염병인 자살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그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더 큰 재앙 가운데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치유를 위해 기독교는 인간의 궁극적 과거와 미래의 시간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현재적 삶이 갖는 의미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 내지는 재해석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현재적 삶은 이런 시간 선상에서 경험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아무리 고통과 위기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미래적 시간의 희망 안에서 넉넉히 극복될 것이다. 이런 인간 생명과 존재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이 확대된다면 자살이라는 치명적 질병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4.2 실제적 제안

그렇다면 자살이라는 파괴적인 질병 퇴치를 위해 기독교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살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법은 크게 거시적 차원 사회참여와과 미시적 차원의 자살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적 차원의 사회참여는 기독교적 생명존중사상의 확산이나 자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같은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 비율이 높지만 긍정적 영향력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9월 10일이 ‘세계자살예방의 날’인데,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하고 사회전반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독서의 달’인 9월을 ‘생명존중의 달’로 이중 지정하는 문제도 고려해볼직 하다.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인식한 우리 사회에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서 필요하다면 각종 기독교 사회단체들의 대정부 로비를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생명존중사상의 확산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기독교의 활동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자살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기독교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

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각종 치료프로그램 마련에 앞장서는 것이다.

둘째 미시적 차원의 해결방안으로는 자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범 기독교 차원에서 개발하고 교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같은 곳에서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32], 다른 수많은 단체들도 여러 방면에서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돕기엔 여전히 수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중소도시와 읍면 단위까지 이르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춘 기독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상담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자살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각 지역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면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과 같은 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과급력 면에서 이들과 비교도 안되는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살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이 선제되어야 하고 교파를 초월한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각 교단 및 지역교회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자살예방을 위한 거시적 노력과 미시적 노력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병행된다면 자살문제는 조금씩 진전을 보일 것이다. 논자의 이런 제안은 물론 원론적인 것이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기독교 내의 각 교파들이 함께 하는 일종의 범 교회적 자살대책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실제적인 연구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 IV. 나가는 말

일부 헬라 철학자들처럼 자살을 찬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행이라는 인식 역시 문제이다. 자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선시 된다. 자살을 명예롭고 용감한 행위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부여

받은 하나 뿐인 생명을 경시하는 불경스런 행위이며, 반대로 자살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보고 자살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단정하는 것은 자살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이다. 둘 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인식을 상실하고, 또 미래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를 동시에 상실할 때 자살의 위험에 빠진다.

자살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그 원인 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학자들이 지목한 생물학적, 정신과적, 사회학적 요인들이 자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지만 본질적인 것은 못된다. 결국 자살은 이러한 요인들이 한 개인의 삶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 속의 존재이자 자기 해석적인 존재인 인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될 때 자살이란 탈출구를 찾는다. 자신의 개인적 과거가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며 미래에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시간 선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자살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본질적인 해법과 두 가지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논문을 매듭짓고자 한다.

첫째, 인간은 궁극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인식은 생명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할 것이다. 둘째, 비록 인간이 현재의 위기 속에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위기는 극복되고, 희망의 미래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적 복음을 제시할 필요하다. 셋째, 자살은 성경의 살인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이지만 지옥행으로 확정된 범죄행위가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자살의 위험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는 이런 원론적 제

안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확대하고, 초 교과적 자살예방센터의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을 통해 직접적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Aristotle, "Ethica Nicomachea: Nicomachean Ethics, trans," W.D. Ross. New York: McGraw-Hill, 1947.

[2] Aaron T. Beck, R. Steer, M. Kovacs, and B. Garrison, "Hopelessness and Eventual Suicide: a 10-year Perspective Study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Suicidal Ide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ic Genetics, Vol.142, pp.559-563, 1985(June).

[3] J. Bowlby,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1980.

[4] J. Cooper, "Ethics of Suicid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9, 1998.

[5] Edwin S. Shneidman, *The Suicidal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6] Maurice L. Farber, *Theory of Suicide*,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68.

[7] Charles V. Gerkin, *Crisis Experience in 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1979.

[8] J. Macquarrie, *In Search of Humanity: A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Co., 1983.

[9] 교육과학기술부 편, *학생자살예방교육 및 위기관리*, 교육과학기술부, 2008.

[10] 뒤르켐, 에밀/김충선 역, *자살론: 사회학적 연구*, 서울: 청아출판사, 1994.

[11] 모네스티에, 마르탱/이시진·한명희 공역, *자살론*, 서울: 도서출판 새움, 2002.

[12] <http://www.who.int/features/qa/24/en/>

[13] [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

/en/

[14] <http://www.who.int/topics/suicide/en/>

[15] 세네카/김천운 역, *세네카의 인생론*, 서울: 동서문화사, 2007.

[16] 신성원,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3호, 2008(3)

[17] 심상영, "기독교의 자살관과 그 대책", 심성연구, 제22권, 2007.

[18] 안석모, "자살의 이해와 목회적 대응", 신학과 세계, 2003년 가을,

[19] 어거스틴/조호연·김종휴 역, *신국론*, 제1권 서울: 현대지성사, 1997.

[20] <http://yonhapnews.co.kr/economy/2014/02/10>

[21] 유용식, "우울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2014(10).

[22] 윤철원, *자살에 대한 성찰*, 활천, 2002.

[23] 재미슨, 케이 레드필드/이문희 역, *자살의 이해*, 서울: 뿌리와이파리, 1999.

[24] 정석환, "자살의 문제와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04.

[25] 조이너, 토머스/김재성 역,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서울: 황소자리, 2012.

[26] 조준필, *자살 예방의 과학적 접근*, 활천, 2002.

[27] 프로이트, 지그문트/김명희 역, *누대인간*, 서울: 열린책들, 1996.

[28] 최병학, "자살 & 살자: 기독교 시각에서 본 자살과 생명윤리", 윤리교육연구, 제31집, 2013.

[29] 최영민, *자살의 종교적 철학적 이해*, 자살의 이해와 예방, 서울: 학지사, 2008.

[30] 카루스, 폴/이지현 역, *악마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까치, 2003.

[31] 퀴네트, 폴/육성필·이혜선 공역, *자살,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서울: 학지사, 2006.

[32] <http://kostat.go.kr>

[33] 플라톤/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네 대화 편: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서울: 서광사, 2003.

[34] <http://www.khwis.or.kr/usr/main.do>

[35] 한승진,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와 기독교 생명윤리”, 인문학연구, 제18호, 2010.

### 저 자 소 개

제 해 중(Haejong Je)

정회원



- 1994년 2월 : Andrews University (M.Div. 신학 석사)
- 2009년 5월 : Andrews University (Ph.D. 조직신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종교, 언어, 문화 콘텐츠